

대학생의 폭음 관련 사회인지적 요인과 음주 정도의 관계 - 지각된 음주규준의 역할을 중심으로*

류 미 이 민 규 신 희 천†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음주행동에 미치는 사회인지적 요인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대학생 폭음 집단에서 음주와 음주 결과기대, 금주 자기효능감, 지각된 음주규준, 음주동기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설문은 e-mail로 이루어졌으며, Wechsler(1992)의 폭음(binge drinking) 정의에 해당하는 남학생 148, 여학생 152명, 총 300명의 폭음집단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폭음집단에서 음주정도와 음주동기, 지각된 음주규준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비폭음 집단에서는 지각된 음주규준이 음주정도와 관련이 없었다. 또한 폭음집단에서 남녀 모두 친한 친구의 음주정도를 과대추정하였으며, 지각된 동료음주 규준과의 차이가 개인의 음주정도와 유의하게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보통의 대학생의 음주정도 추정과의 관련성에 있어서는 남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아울러 회귀분석을 통해 알코올기대, 금주 효능감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 지각된 음주규준이 음주정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미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음주정도에 미치는 지각된 음주규준의 영향을 음주동기가 매개하는지를 검증한 결과, 지각된 음주동기는 음주규준과 음주정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임상적 의의와 제한점이 논의되었다.

주요어 : 폭음, 음주동기, 지각된 음주규준

* 본 논문은 류미의 석사 학위 논문 일부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신희천,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E-mail : hcshin@ajou.ac.kr

학년에 불문하고 대학생 집단은 사회적으로 가장 술을 많이 마시는 집단이다(Wechsler & Nelson, 2001). O'Neil, Parra 그리고 Sher(2001)의 연구에서는 대학생 시절의 과음이 점차 자연적으로 감소하기는 하지만, 대학생 때의 음주가 11년 후의 음주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Wechsler(1992)의 연구에 의하면 폭음을 보고하는 대학생의 경우에 그렇지 않은 대학생들보다 음주로 인한 문제가 5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 음주자(non binge drinker)에 비해 폭음 대학생의 결석률이 17배, 기물파손 경험이 10배, 상해경험이 8배에 이르고 있다(Wechsler et al., 2001). 국내연구에서도 일주일에 한번 이상 술을 마시는 대학생이 그렇지 않은 대학생보다 데이트를 하면서 이성 친구에게 폭력을 행할 가능성이 더 높았고, 데이트 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문제 음주를 더 하는 경향이 있었다(서경현, 2003). 이처럼 한 번 형성된 음주습관은 잘 변화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음주 문제들은 오랫동안 유지되어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된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술 마시는 날에 보통 7잔 이상을 마시는 학생이 40.9%에 이르며(천성수, 2002), 강원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대상자의 79%(남성 83.9%, 여성 73.1%)가 알코올을 소비하며, 63.6%의 남학생과 29.6%의 여학생이 폭음자로 분류되고, 15.4%의 남학생과 11.2%의 여학생이 과음자에 해당한다(양정수, 황부근, 김차용, 2003). 또한 한국형 알코올중독자 선별테스트에 의하면 14.6%의 대학생이 알코올 의존상태에 있으며, 알코올사용장애선별검사(AUDIT)에서 12점을 기준으로 문제음주를 분류하면, 남자대학생

(55.1%)이 성인남자(35.2%)와 남자재소자(51.1%)들보다 더 많은 문제음을 보이고 있다(고명숙, 천성수, 박영일, 김명석, 박종순, 2002). 대학에 다니는 기간은 청소년기의 연장으로 성격형성에 중요한 시기일 뿐만 아니라, 특히 국내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후 음주가 공식적으로 가능해지기 때문에 음주와 관련된 문제 뿐 아니라 미래의 음주습관 형성에 있어서도 중요한 시기임을 고려할 때(이민규, 1993), 대학생들의 음주행동 조절과 음주절제를 돕기 위한 효과적인 개입을 탐색하는 경험적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음주행동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으나 음주패턴과 관련된 연구들에서 일반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용어로는 Wechsler가 1992년 메사추세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서 제안한 '폭음(binge drinking)'이 있다. 이 용어는 각각의 성별과 연령 집단에서 고위험 표본을 구별하는 능력이 있어 조사연구에서 좋은 위험 지표로 모집단 수준에서 유용하며, 간결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단어로 많은 양의 정보를 담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이점들로 인해 폭음은 음주 패턴 연구에서 공통적인 용어로 흔히 사용되고 있다. Wechsler의 정의에 따라 만들어진 CAS(the Havard School of Public Health College Alcohol Study: 하버드 공익 건강 대학생 알코올 연구)에 의한 정의는 '알코올 관련 문제를 겪게 하는 증가된 위험상태에 음주자를 놓이게 하고, 타인들을 부작용을 겪게 하는 위험상태에 놓이게 하는 충분히 많은 양의 알코올 섭취'이다. 이러한 정의를 충족시키기 위한 측정으로, 응답자가 평가 전 2주 동안 최소한 한번 이상 한 자리에서 연속적으로 남성의 경우 5잔, 여성의 경우 4잔 이상을 소비한

경우를 폭음으로 정의했다(Wechsler & Isaac, 1992). 이들은 8개의 알코올관련 문제를 보이는 4잔(drinks) 이상을 마시는 여성이, 5잔 이상을 마시는 남성과 비슷한 문제를 경험한다는 근거로, 남성과 여성의 기준이 다를 것을 설명했다.

일인당 알콜소비량이 세계 최상위권인 우리의 문화적 여건 속에서는 2주 동안 한 자리에서 남성 5잔, 여성 4잔 이상의 음주를 1회 이상 했다고 해서 특별히 그것이 해가되는 특별한 음주인 ‘폭음(暴飲)’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Williams, Connor 그리고 Ricciardelli(1998)는 위험음주(risky drinking), 의존음주(dependent drinking), 질병의 인식(recognition of an illness)이라는 세 단계에서, 위험음주가 질병으로 반드시 확대된다고 간주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험음주에서부터 알코올중독이라고 부르는 최고조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연속선이 있음을 시사하는 유의미한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다. 즉 폭음이나 위험음주가 의존음주를 거쳐 알코올중독으로 가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그럴 수도 있다는 대답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 국내의 경우 미국보다 훨씬 높은 음주자, 폭음자 비율에도 불구하고 대학생들의 폭음에 대한 개입과 예방개입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대학생 폭음자들은 폭음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노출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예방 및 치료적 개입의 필요성이 요구됨과 동시에, 그 기초로써 과연 대학생의 폭음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무엇이며, 관련된 문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인지가 확인될 필요가 있다.

폭음이라는 음주행동과 관련하여 생물학적, 심리적, 환경적, 문화적 변인들을 비롯하여 다

양한 요인들이 연구되어 왔다. 최근 대학생 집단의 음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중요한 변인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것은 음주 규준이다. 음주 규준은 다른 사람들의 음주 정도에 대한 주관적 지각을 의미한다. Perkins와 Berkowitz(1986)는 대학생들이 지속적으로 동료의 물질사용 정도를 과대추정한다는 것을 밝히면서 사회적 규준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촉발되었다. 관찰된 타인의 행동들을 그들의 성격으로 귀인하려는 일반적인 경향성, 그리고 알코올의 영향 하에서 학생들의 지나친 행동들이 두드러지게 기억되는 점, 미디어가 지속적으로 지각들을 확증시키고 증폭시키는 것이 대학생의 오지각을 불러일으키고 확장시킨다는 것이다(Jones, 2004). Borsari와 Carey(2003)에 따르면, 지각된 규준은 개인의 알코올 소비에 두 단계로 영향을 준다. 우선 개인적인 알코올 소비를 지각된 규준과 비교하고, 다음으로 자신의 행동에 대한 기준으로 과장된 규준들을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과도한 음주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대학생들이 동료들의 음주를 일반적으로 과대평가하는 오지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들에서 뒷받침되고 있다(Baer, Stacy, & Larimer, 1991; Perkins & Berkowitz, 1986; Perkins & Wechsler, 1996; Prentice & Miler, 1993). 대학생의 음주가 동료 음주에 대한 지각의 영향을 받는다면, 그 지각이 현실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는 정보를 과음하는 학생에게 제시할 때 그들의 가치와 행동 사이의 불일치를 일으킬 수 있고, 결과적으로 음주행동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정 하에 자신의 음주와 타인의 음주에 대한 지각의 불일치를 알리는 음주 예방 개입들이 시도되어 왔고, 이러한 개입이 효과적이라고 보고하는 경험적 연구 결과가 있다

(Neighbors, Lewis, & Larimer, 2004). 국내에서는 김인석과 이연희(2003)의 연구에서 친한 친구나 동료, 가족의 수와 술을 즐겨 마시는 친구나 동료, 가족의 수를 비율로 환산한 음주비용 측정법으로 주변인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 주변인의 영향은 성격과 상호작용하여 음주동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음주를 하는 친구와 가족의 수를 측정한 것으로, 대상자가 주변인의 음주 정도를 어떻게 지각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음주 기준이 실제로 과대추정 되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 국내에서는 음주 관련 연구들에서 음주 기준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으며, 대학생들이 실제로 동료의 음주정도를 과대추정하는지 역시 경험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다.

한편, 선행연구들에서 음주 기준 외에도 다양한 사회인지적 변인들이 음주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왔고, 그러한 변인들에는 알코올 기대, 알코올 거절 자기효능감이 있다. 문제 음주의 병인론 연구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던 변인의 하나는 ‘알코올 기대’였다. 알코올 섭취에 따른 결과 기대는 위험 음주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알코올 관련 결과를 예측 할 수도 있다(Reese, Chassin, & Molina, 1994). 예를 들어, 현재 소비의 양과 빈도에 의해 측정되는 위험음주보다는 Brown이 제작한 알코올기대척도(AEQ)가 알코올 의존을 더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Williams et al., 1998). 알코올 기대라는 개념은 알코올의 효과가 단순히 알코올의 신체적인 영향이라기 보다는 그 사람이 이 효과들에 대해 갖고 있는 신념의 기능을 가리킨다(Morawska & Oei, 2004). Wiers, Hoogveen, Sergeant, 그리고 Gunning(1997)은 기대를 “특정한 행동의 기능

으로 특정한 강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개인이 갖게 된 확률(개연성, probability)”이라고 정의하기도 했다. 즉, 알코올의 행동적 효과를 결정하는 것은 알코올의 실제적인 물리적 활동이라기보다는 행동을 변화시킨다는 알코올의 힘에 대한 개인의 신념이라고 보는 것이다(Leigh, 1989). 사회학습 이론에 따르면 알코올에 대한 기대, 예측, 과거의 알코올 사용의 기억 같은 인지적 활동들과 모델링이 음주 행동을 결정하는데 일차적인 역할을 한다고 가정된다. 알코올 기대에 대한 연구들에서는 요인 분석 결과 긍정적 음주기대와 부정적 음주기대라는 분리된 요인구조를 확인하였고(Fromme, Stroot, & Kaplan, 1993; Leigh & Stacy, 1993), 이 두 기대가 음주행동에 대한 변별 타당도와 차별적인 예언 타당도를 가지고 있었다(Stacy, 1997). 이러한 결과들을 고려할 때, 긍정적 음주 기대가 높아지면 꼭 부정적 음주기대가 낮아지는 것은 아니며, 긍정적 음주기대와 부정적 음주기대의 합산(혹은 차이)이 음주행동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독립적으로 음주행동을 예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김석도, 1999).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특정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을 뜻한다. 알코올과 관련된 자기효능감은 특정한 상황에서 알코올을 거절하거나 알코올에 저항하는 개인의 지각된 능력을 의미하며 특히, 고위험 음주상황에서 효율적으로 음주관련 대처행위를 수행하는 능력에 대한 자신감, 신념 등을 의미한다. Collins, Marlatt 그리고 George(1985)는 고위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효능성은 그러한 상황에서 알코올의 첫 번째 사용을 방지해주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았다. Abrams와 Niaura(1987)는 “음주를 결정하거나

억제를 하기로 하는 것(자기통제)은 궁극적으로 현재의 상황적 맥락을 둘러싸고 형성되는 결과 기대와 자기효능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언급하면서 알코올의 사용과 관련한 결과 기대와 함께 자기효능감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처럼 대학생의 폭음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지적 요인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음주 규준 외에도, 지금까지 긍정적 음주기대, 부정적 음주기대, 음주 자기효능감 같은 변인들이 음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선행연구들에서 폭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긍정적 음주기대, 부정적 음주기대, 그리고 음주 자기효능감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음주 규준이 폭음자들의 음주정도에 추가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대학생 폭음자들의 음주행동을 조절하는데 기여하는 핵심적인 사회인지적 요인을 탐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이를 기초로 음주절제를 위한 개입 전략을 모색하는데 실제적인 지침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한편 Cox와 Klinger(1988), 그리고 Cooper, Frone, Russel & Mudar(1995)는 음주와 관련된 여러 요인들이 음주동기를 매개로 음주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들은 음주동기는 알코올 사용의 최종 공통경로일 것이라는 음주동기 모형을 가정하고, 성격, 대처 유형이 음주동기를 매개로 하여 음주 및 음주문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동기모형을 확인하였다. 또한 Cooper 등(1995)은 사회적/정서적 고양 기대, 감각 추구성향 및 긴장감소 기대, 부정적 정서, 회피동기와 같은 선행변인들이 동기를 거쳐 알코올 사용과 음주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 밖에도 Gaher, Simons, Jacobs, Meyer 그리고 Jonson

-Jimenez(2005)는 특질적 부정적 정서(trait negative affect)가 대처동기를 매개로 하여 알코올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매개모형을 확인하였다. 이와 관련한 국내 연구로는 성격(외향성, 새로운 경험추구, 불안, 적대감)이 주변인의 음주영향(가족, 친구)과 음주동기를 경유하여 알코올 사용의 심각성과 일상생활의 기능적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다(김인석, 이연희, 2003).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음주동기는 음주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근접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첫째, 음주 규준과 음주정도와와의 관련성을 경험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즉, 실제로 국내 대학생들이 동료의 음주정도를 실제 음주정도보다 과대추정하는지 알아보고, 지각된 음주 규준과 실제 개인의 음주정도와와의 차이가 음주정도와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음주정도 혹은 지각된 규준에 있어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기에 (Neighbors, O'Conner, Lewis, Chawla, Lee, & Fossos, 2008; 한소영, 이민규, 신희천 2005), 음주 규준에서 성차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은, 알코올 기대, 자기효능감과 같은 잘 알려진 요인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지각된 음주규준이 음주정도에 기여하는 바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지각된 음주 규준이 대학생의 폭음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를 확인하기 위하여, Cox와 Klinger(1988)의 동기모형과 같이 지각된 음주규준과 음주동기를 매개로 음주정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음주동기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방 법

연구 대상

서울과 수도권 대학의 학생 631명을 대상으로 e-mail로 설문지를 발송하여 총 392명의 학생이 응답을 하였다. 응답을 한 학생 392명 중 Wechsler(1992)의 폭음 정의에 해당하는 학생 300명이 폭음자로 분류되었다. 응답자의 연령은 만 18세부터 29세까지이며 평균연령은 22.49세였다. 응답자는 학년별로 1학년 56명(18.7%), 2학년 83명(27.7%), 3학년 61명(20.3%), 4학년 100명(33.3%)이었다.

측정 도구

폭음

폭음자는 Wechsler(1992, 2001)의 폭음기준으로 정하였다. 폭음(binge drinking)의 기준은 ‘지난 2주 동안 한 번의 술자리에서 5잔 이상(남성, 여성의 경우 4잔 이상)의 술을 마신 횟수가 1번 이상’일 경우이다. 상습 폭음자(frequent binge drinker)는 같은 기간에 3번 이상을 마시는 것을 기준으로, 수시 폭음자(occasional binge drinker)는 같은 기간에 3번 미만으로 마시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음주정도

음주 정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우선 1잔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1잔의 기준으로 맥주 350ml 병 혹은 캔, 와인의 경우 와인잔으로 1잔, 소주는 소주잔으로 1잔, 기타 증류주(위스키, 브랜디 등)는 양주잔으로 1잔을 제시하였다. 이는 이전의 국내외 연구들에서 보통 쓰이는 1잔의 기준으로, 알코올도수는 달라도

전형적으로 술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잔의 크기에 따라 알코올의 양은 대체로 일정하다는 사실에 따른 것이다. 지난 한 달 간 1주 동안의 평균적인 주량과 술을 마신 횟수를 질문하였고 빈도(frequency)와 양(quantity)을 더하여 음주정도를 구성하였다.

지각된 음주 기준

지각된 음주기준은 지각된 음주 기술기준으로 물었으며, “__대 대학생(질문자와 같은 학교)”으로 질문되는 ‘보통의 대학생’ 그리고, ‘친한 친구’로 구성되었다. 각각의 경우에 지난 한 달간 1주 동안의 평균소비량, 술을 마신 횟수, 지난 30일간 술자리에서 남성의 경우 5잔 이상, 여성의 경우 4잔 이상을 마신 횟수는 몇 번인지 폭음 횟수를 물었다. 이 질문은 본인의 음주정도와 폭음 정도를 묻는 것과 동일한 질문이다.

음주 오지각 차이(지각된 친구기준-실제 음주평균, 지각된 대학생기준-실제 음주평균)

동료의 실제 음주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응답자들의 음주정도를 평균하였고, 친구 음주기준과 보통의 대학생 음주기준에서 각각 음주정도 평균을 빼서 음주 오지각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음주동기

Cox와 Klinger(1988, 1990)의 분류에 따라 개발한 한성열과 신행우(1999)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제시된 상황에서 술을 얼마나 자주 마셨는지 1 ‘전혀 마시지 않는다’부터 5 ‘거의 항상 마신다’까지 5점 척도이며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고양, 대처, 동조 및 사교의 네 가지 하위요소로 구성된다. 한

성열과 신행우(1999)의 원 논문에서, 음주동기 네 가지 하위요소 각각의 내적 합치도(α)는 .76, .89, .80, .85이다. 본 연구에서는 네 개의 하위요소의 내적 합치도는 각각 .80, .92, .80, .87이고, 전체는 .89 였다.

금주 자기효능감

음주하기에 좋은 위험상황에서 술을 마시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자신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Alcohol Abstinence Self-efficacy Scale (DiClemente, Carbonari, Montgomery, & Hughes, 1994)을 사용하였다. 자기효능감에 대한 Bandura의 구성개념에 맞춰서 금주에 적용된 자기보고식의 20문항의 리커트 5점 척도이다. 원척도의 네 가지 하위척도는 부정적 정서, 사회적 긍정적 상황, 신체적 및 기타 어려움, 금단증상 및 갈망으로 각 5문항으로서 5점 척도로 구성된다. DiClemente의 척도를 유채영(2000)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유채영의 연구에서는 전체 내적합치도가 .95였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전체 .92이고, 네 개의 하위척도의 내적합치도는 각각 .91, .66, .76, .68이다.

알코올 기대

술을 마시면 어떤 일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질문함으로써, 알코올의 효과에 대한 기대를 알아보는 질문지로, 알코올 기대 척도(Alcohol Expectancy Scale; AES; Leigh & Stacy, 1993)를 사용하였다. 국내에서 김석도(2000)가 번안하여 요인을 재확인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Leigh와 Stacy(1993) 연구에서 긍정적 기대 .94, 부정적 기대 .88, 전체 .52의 내적합치도를 보여주었고,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7이었다. 김석도(2000)의 연구에서는 긍정적 기대 .93, 부

정적 기대 .85, 전체 .89의 내적 합치도를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 기대의 신뢰도는 .88, 부정적 기대의 신뢰도는 .82이며, 전체 .85 였다.

자료분석

SPSS 12.0 통계 패키지를 사용하여 기술 통계 분석과 상관분석, 변량분석 및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지각된 음주규준 같은 변인들이 음주동기를 매개로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Baron & Kenny(1986, Frazier, Tix, & Barron, (2004)에서 재인용)가 제안한 일련의 회귀분석을 통한 매개 과정을 검증하였다. 또한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검증하기 위하여 Sobel(1982) 검증을 실시하였다.

결 과

폭음자 현황

설문에 응한 조사대상자는 총 392명이었으며, 그 중 Wechsler(1991)의 폭음 기준에 해당하는 폭음자는 300명으로 총 응답자의 76.5%에 달했으며 남성 148명(37.7%)과 여성 152명(38.7%)의 비율이 비슷하였다. 그 중 2주 동안에 3번 이상 폭음하는 상습 폭음자(frequent binge drinker)는 128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32.6%였고, 2주 동안 5/4잔을 3번 이하의 음주를 하는 수시폭음자는 전체 응답자의 43.8%인 172명이었다.

표 1. 대학생 폭음자 현황

(392명: 100%)

	전체	남	여
비폭음자	92 (23.4%)	31 (7.9%)	61 (15.5%)
폭음자	300 (76.5%)	148 (37.7%)	152 (38.7%)
수시 폭음	172 (43.8%)	78 (19.9%)	94 (23.9%)
상습 폭음	128 (32.6%)	70 (17.8%)	58 (14.7%)
	392	179	213

표 2. 폭음집단/ 비폭음집단의 변인 간 상관

폭음자 \ 비폭음자	1	2	3	4	5	6
1. 음주정도	1.00	.054	-.203	-.281 **	.446 **	.078
2. 긍정적 음주기대	.220 **	1.00	.272 **	-.462 **	.431 **	-.112
3. 부정적 음주기대	-.003	.122 *	1.00	-.127	-.062	.137
4. 금주 자기효능감	-.372 **	-.420 **	-.211 *	1.00	-.704 **	-.102
5. 음주동기	.469 **	.600 **	.194 **	-.654 **	1.00	-.048
6. 지각된 음주규준	.584 **	.186 **	.038	-.213 **	.262 *	1.00

* $p < .05$, ** $p < .01$

변인 간 상관관계

폭음집단의 변인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부정적 음주결과기대를 제외한 모든 변인들이 음주정도와 유의미하였다. 지각된 음주규준이 음주정도와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다($r = .584$, $p < .01$)고 또한 음주동기($r = .469$, $p < .01$), 금주 자기효능감($r = -.372$, $p < .01$), 긍정적 음주결과기대도 음주정도와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r = .220$, $p < .01$).

한편 비폭음자 집단에서의 변인들 간 상관은 폭음집단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음주정도와 음주동기가 가장 큰 상관을 보이고,

금주 자기효능감이 그 다음으로 부적상관을 보였다. 가장 큰 차이는 폭음집단에서는 지각된 음주규준이 가장 큰 상관을 나타냈던 것과 달리, 지각된 음주규준은 다른 변인들과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다($r = .078$, $p = ns$). 따라서 폭음을 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얼마나 마시는가와 자신의 음주를 관련시키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폭음 집단의 지각된 음주규준과 음주정도

대학생 폭음 집단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실제 음주정도와 지각된 음주규준에 유의미한

표 3. 폭음 집단의 음주정도와 지각된 음주규준의 평균, 표준편차

	실제 음주정도	지각된 음주규준(친한 친구)	지각된 음주규준(대학생)
전체	7.54 (3.26)	8.40 (3.46)	8.20 (2.88)
남성	8.12 (3.44)	9.06 (3.57)	8.28 (2.91)
여성	6.97 (2.97)	7.76 (8.11)	8.11 (2.86)

표 4. 남녀 폭음집단의 음주규준 차이와 음주정도의 상관

남성 \ 여성	1	2	3
1. 차이(친구규준-음주평균)	1.00	.582 **	.587 **
2. 차이(대학생규준-음주평균)	.495 **	1.00	.460 **
3. 음주정도	.577 **	.386 **	1.00

* $p < .05$, ** $p < .01$

차이가 있었다. ‘지각된 친한 친구의 음주규준’ 평균(8.40)이 ‘실제 음주정도’ 평균(7.54)보다 컸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t = 4.953, p < .001$). 또한 ‘지각된 본교 대학생의 음주규준’ 평균 또한 ‘실제 음주정도’ 평균보다 크고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 = 3.432, p < .001$).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남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다. 남성의 경우 실제 음주정도보다 지각된 친구 음주규준이 더 컸으며 이 차이는 유의하였다($t = 3.536, p < .001$). 그러나 지각된 대학생 음주규준과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t = .555, p > .05$). 여성의 경우 실제 음주정도보다 지각된 친구 음주규준이 더 크고($t = 3.466, p < .001$), 지각된 대학생 음주규준 또한 역시 더 컸다($t = 4.654, p < .001$).

또한, 지각된 친구음주 규준과 실제 음주정도의 차이, 지각된 대학생음주 규준과 실제 음주정도의 차이 그리고, 음주정도와의 관계

를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어 상관관계를 살펴 보았다. 여성의 경우 본인의 음주정도와 친구 규준-음주평균 차이의 관계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었으며($r = .582, p < .01$), 대학생규준-음주평균의 차이도 비슷하게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r = .460, p < .01$). 남성의 경우에도 본인의 음주정도와 친구규준-음주평균의 차이, 대학생규준-음주평균의 관계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여주고 있었다($r = .577, .386, p < .01$).

음주정도에 미치는 사회인지적 변인들의 영향

폭음 집단에서, 긍정적, 부정적 알코올결과 기대와 금주 자기효능감과 같은 사회인지적 변인들이 음주정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통제하고 지각된 음주규준이 음주정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긍정적 음주기대, 부정

표 5. 음주정도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중다회귀분석

단계		R ²	Adj.R ²	ΔR ²	ΔF	β	t
1	긍정적 음주기대	.151	.142	.151	17.541 ***	.100	1.37
	부정적 음주기대					.018	.252
	금주 자기효능감					-.357 ***	-5.954 ***
2	긍정적 음주기대	.412	.404	.261	131.011 ***	.023	.382
	부정적 음주기대					.065	1.069
	금주 자기효능감					-.270 ***	-5.331 ***
	지각된 음주규준					.526 ***	11.446 ***

* $p < .05$, ** $p < .01$, *** $p < .001$

적 음주기대, 금주 자기효능감을 통제한 상태에서 지각된 음주규준이 음주정도를 26.1% 설명하고 있었다. 긍정적 음주기대($\beta = .10$, $p = .17$)와 부정적 음주기대($\beta = .018$, $p = .80$)는 음주정도를 유의미하게 예측하지 못하였고, 금주 자기효능감($\beta = -.27$, $p < .01$)은 음주정도에 영향을 주는 예측요인이었으나 지각된 음주규

준보다 설명력이 미약하였다.

음주동기의 매개효과

Cox와 Klinger(1988)의 동기모형이 지각된 음주규준과 같은 변인과의 관계를 설명할 것인지 확인해보고자 음주동기를 매개변인으로 회

표 6. 지각된 음주규준과 음주정도에서 음주동기의 매개효과

단계			B	SE B	β	t
1	결과변인	음주정도				
	예측변인	지각된 규준	.275	.022	.584	12.421 ***
2	결과변인	음주동기				
	예측변인	지각된 규준	.355	.076	.262	4.668 ***
3	결과변인	음주정도				
	매개변인	음주동기	.118	.016	.339	7.582 ***
	예측변인	지각된 규준	.234	.021	.495	11.087 ***

* $p < .05$, ** $p < .01$, *** $p < .001$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지각된 음주규준은 음주정도를 예측하였고($\beta = .584, p < .001$), 음주동기도 예측하였다($\beta = .262, p < .001$). 지각된 규준이 음주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고 난 후에 음주동기가 음주정도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미하였다. 음주동기가 매개변인으로 투입되었을 때, 지각된 규준이 음주정도에 미치는 영향은 줄어들었다($\beta = .495, p < .001$). 그러나 이 경로는 여전히 유의미하였으므로 완전매개보다는 부분매개 모델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매개의 효과는 Sobel Test 시 유의하였으며 따라서 매개 효과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Z=3.946, p < .001$).

논 의

본 연구에서는 폭음자의 비율이 전체 조사 대상자의 76.5%로 상당히 높았다. 이는 선행 연구들에서 폭음자의 비율보다도 다소 높았으며, 선행연구들의 경우 남성 폭음자 비율이 여성보다 높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여성 폭음자의 비율이 남성과 비슷하였다. 이는 점점 증가하는 20대 여성 음주자 비율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보건복지부, 2001). 여성은 남성보다 알코올에 취약하고 그로인한 위험도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여성의 폭음에 대한 연구에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아울러 폭음자와 비폭음자 집단은 음주정도와 관련 있는 변인에서 차이가 있었다. 폭음 집단에서는 부정적 음주기대를 제외한, 긍정적 음주기대, 음주동기, 금주 자기효능감, 지각된 음주규준이 음주정도와 유의하게 관련이

되어 있었으나 비폭음 집단에서는 금주 자기효능감, 음주동기 두 변인만이 음주 행동과 관련이 있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폭음 집단에서는 지각된 음주 규준과 음주정도가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것에 반해 비폭음 집단에서는 음주정도는 지각된 음주 규준과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폭음자에 있어서는 타인이 얼마나 마시는가에 대한 지각이 알코올의 소비를 증가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지만, 폭음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 타인이 얼마나 마시는가 하는 지각이 개인의 음주와 관련이 없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지각된 음주규준이 폭음집단에서는 음주정도와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이고 있어, 폭음하는 대학생의 경우에 친한 친구나 보통의 대학생들이 얼마나 마시고 있다고 지각하느냐에 따라 본인의 음주정도도 커진다고 볼 수 있으나 폭음하지 않는 대학생의 경우에는 타인의 음주정도와 자신의 음주를 관련시키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대학생들이 동료의 음주정도를 실제 음주정도보다 과대추정하는지 확인해보고, 지각된 음주규준과 개인의 음주정도의 차이가 음주정도와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지각된 음주규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선행 연구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폭음하는 대학생들이 동료의 음주정도를 더 크게 지각한다는 것이 드러났다. 즉, 국내 대학생들도 본인보다는 다른 대학생들이 더 많은 양의 음주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폭음집단에서 대학생들의 실제 음주정도와 지각된 동료의 음주규준의 차이가 클수록 즉, 친한 친구나 다른 보통의 대학생들이 술을 더 많이 마신다고 생각하고 있어 동료의 음주를 실제보다 과대

하게 추정할수록 본인의 음주정도도 더 커지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남녀의 차이를 본 결과, 여학생의 경우 같은 학교의 보통의 대학생들이 술을 마시는 양을 자신의 음주정도보다 크게 지각했으나 남학생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다. 이러한 차이는 ‘보통의 대학생’이라는 기준을 떠올릴 때 여학생들은 ‘남자’를 보통의 대학생이라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Lewis와 Neighbors(2006)의 연구에서 여학생과 남학생 모두 ‘보통의 대학생’을 떠올릴 때 ‘남자’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결과로 미루어볼 때, 본 연구에서는 여학생들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이 마신다는 일반적인 통념 하에 ‘보통의 대학생’을 남학생으로 기준을 삼은 것이 본인과의 음주정도 차이를 더 크게 지각하게 했을 수 있다. 아울러 남학생은 남학생들이 보통의 대학생들보다 많이 마신다고 지각하는데 반해, 여학생들은 보통의 학생들보다 여학생들이 술을 덜 마신다고 지각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로 볼 때(Neighbors et. al., 2008), 여학생은 ‘친한 친구’의 경우 주로 여학생을 기준으로, ‘보통의 대학생’은 남성을 기준으로 생각하면서 응답하였을 가능성이 높겠다. 여학생과 달리 남학생은 보통의 대학생들과 자신의 음주정도가 차이가 없다고 지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학생들이 본인의 음주정도를 일반적인 대학생 기준에 근접하게 생각하려는 기대를 통해서 자신의 음주 정도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러한 남녀 차이는 동료의 음주 기준을 오지각한다는 불일치를 제공하여 음주정도를 낮추려는 개입방식을 고려할 때, 남학생과 여학생에 따라 차이가 있어야 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지각된 음주 기준이 음주정도에 미치

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음주기대나 금주 자기효능감을 통제한 후에도 지각된 음주기준은 음주정도를 추가적으로 설명하였다. 긍정적·부정적 음주기대는 음주정도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지 못했고, 금주 자기효능감은 음주정도를 예측하였으나 그 설명력이 지각된 음주기준보다 작아, 지각된 음주기준이 음주정도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변인임이 확인되었다. 이렇듯 지각된 음주기준이 가장 많은 설명량을 보이는 것은 김희경 외(2004)의 연구에서 여대생의 음주행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친구의 음주빈도(21.0%)’로 나타난 것과 관련있는 결과로 보인다. 우리나라 청년은 동기 중에서도 사교나 동조 동기가 높다(신행우, 1999). 개인 내적인 이유(대처, 고양)보다는 다른 사람과의 친교를 위한 수단으로써, 혹은 주변 사람들과 맞춰주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경향이 더 크다는 것이다. 이렇듯 사교나 동조 동기가 높은 국내의 대학생들에게 있어서 청년들에게 있어서 타인이 얼마나 마시는가 하는 개인의 지각은 타인의 음주를 개인의 음주에 대한 기준으로 삼기가 더욱 쉬워질 것이다.

동기모형을 검증하고자 지각된 기준이 음주동기를 매개로 하여 음주정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을 때, 지각된 음주기준은 동기를 경유하여 음주정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지만 직접 음주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음주기준이 음주동기를 매개로 하여 음주정도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Cooper(1994), Cox와 Klinger(1988)의 동기모형이 정서나 성격 등의 변인과 결과 기대 이외에 다른 사회인지적 변인에도 적용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대학생들이 동료의 음주를 실제보다 과대추

정하는 현상을 바탕으로, 사회적 규준을 수정하기 위한 개입들이 진행되고 효과를 보고하고 있는데(Borsari & Carey, 2000; Collins, Carey, & Sliwinsky, 2002; Neighbors, Lewis, & Larimer, 2004; Lewis & Neighbors, 2006), 본 연구의 결과는 개인이 생각하는 동료의 음주와 실제 음주정도의 불일치가 존재하며 이를 인지시켜 음주정도를 낮추려는 사회적 규준피드백 접근의 타당성을 지지한다. 또한 비폭음집단과 폭음집단에서 음주정도와 상관있는 변인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차이는 음주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폭음 집단에서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추후 국내 대학생 폭음 집단을 대상으로 폭음 예방과 교육에 필요한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몇 가지 제한점과 그에 대한 대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기존 연구들(Oei, 2005, Oetting & Beauvais, 1990)에서 음주에 대한 자기보고식 측정치가 비교적 신뢰롭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회고적인 방식으로 인해 정확한 응답이 아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문제는 연구 대상자에게 미리 일지를 제공하여 매일의 음주정도와 경험을 기록하게 하는 Time-Line Follow-Back(TLFB) 측정법(Sobell, Sobell, Klajner, Pavan, & Basian, 1986)이나 동료, 가족의 객관적 평가를 더하는 방법이 병용되면 좋을 것이다. 두 번째로 본 연구는 횡단적 자료로써 변인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말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다. 보다 정확한 인과관계를 확실히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종단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측정 시기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시험기간과 축제 기간을 피해서 설문지 응답을 받았으나, 응답 전 2주, 한 달이라는 기간이 대학 캠퍼스 내의 다른

행사의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통제하기 위해서 측정 시기를 달리거나 여러 번 측정을 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기에는 대처, 동조, 사교, 고양이라는 네 가지 하위요인이 존재하고 각각 관련되는 선행요인에 차이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느 동기와 선행요인과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지는 않았다. 추후 연구에서는 지각된 음주규준이라는 선행요인이 어떠한 특정 하위 음주동기를 매개로 하여 음주정도의 양과 빈도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해본다면, 관련변인과 음주동기 및 음주정도의 관계에 대한 보다 흥미로운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고명숙, 천성수, 박영일, 김명석, 박종순 (2002). 범죄유형별 음주기여율 비교연구. *한국알코올과학회지*, 3(1), 159-167.
- 김석도 (2000). 음주기대가 음주에 미치는 영향: 기대 이론과 기대-가치 이론의 비교.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인석, 이연희 (2003). 성격, 주변인의 영향, 음주동기가 음주 및 음주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3), 525-541.
- 김희경, 최은숙, 안정선 (2004). 여대생의 음주 행위 영향요인. *아동간호학회지*, 10(2), 205-216.
- 보건복지부 (2001). 국민건강 영양조사 심층분석 보고서.
- 서경현 (2003). 음주동기, 문제음주 및 음주 가족력과 대학생의 데이트 폭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9(2), 61-78.

- 신행우 (1999). 음주동기와 음주문제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5(1), 93-109
- 신행우, 한성열 (1999). 음주동기 척도개발을 위한 예비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5(1), 77-92.
- 유채영 (2000). 문제음주자의 변화동기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논문.
- 양정수, 황부근, 김차용 (2003). 대학생의 음주와 운동이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20(1), 645-657.
- 이민규 (1993). 음주행동과 관련된 심리사회적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2(1), 165-179.
- 천성수 (2002). 대학생폭음의 원인과 음주관련 문제 분석, 한국알코올과학회지, 3(2), 221-233.
- 한소영, 이민규, 신희천 (2005). 남녀대학생의 음주 문제 위험요인: 사회 인지적 요인과 정서적 요인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4), 1003-1019.
- Abrams, D. B., & Niaura, R. S. (1987). *Social learning theory*. In H. T. Blane & K. E. Leonard (Eds.), *Psychological theories of drinking and alcoholism*. New York: Guilford.
- Baer, J. S., Stacy, A., & Larimer, M. (1991). Biases in the Perception of Drinking Norms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52(6), 580-586.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orsari, B., & Carey, K. B. (2000). Effects of a Brief Motivational Intervention With College Student Drinker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8(4), 728-733.
- Borsari B., & Carey, K. B. (2003). Descriptive and injunctive norms in college drinking: A meta-analytic integration.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64(3), 331-341.
- Collins, R. L., & Marlatt, A., & George A. P. (1985). Social Determinants of Alcohol Consumption: The Effects of Social Interaction and Model Status on the Self-Administration of Alcohol.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3(2), 189-200.
- Collins, S. E., Carey, K. B., & Sliwinsky, M. J. (2002). Mailed personalized normative feedback as a brief intervention for at-risk college drinker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63, 559-567.
- Cooper, M. L., Frone, M. R., Russell, M., & Mudar, P. (1995). Drinking to Regulate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s: A Motivational Model of Alcohol Us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5), 990-1005.
- Cox, W. M. & Klinger, E. (1988). A motivational model of alcohol us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7, 168-180.
- Cox, W. M. & Klinger, E. (2002). Motivational structure Relationships with substance use and processes of change, *Addictive Behaviors*, 27, 925-940.
- DiClemente, C. C., Carbonari, J. P., Montgomery, R. P. G., & Hughes, S. O. (1994). The Alcohol Abstinence Self-Efficacy Scale,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55(2), 141-148.
- Frazier, P. A., Tix, A. P., & Barron, K. E.

- (2004). Testing Moderator and Mediator Effects in Counseling Psychology Resear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1(1), 115-134.
- Fromme, K. Stroot, E. Kaplan, D. (1993). Comprehensive effects of alcohol: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assessment of a new expectancy questionnaire, *Psychological assessment*, 5(1), 19-26.
- Gaher, R. M, Simons, J. S., Jacobs, G. A., Meyer, D., & Jonson-Jimenez E. (2006). Coping motives and trait negative affect: Testing mediation and moderation models of alcohol problems among American Red Cross disaster workers who responded to the September 11, 2001 terrorist attacks, *Addictive Behaviors*, 31, 1319-1330.
- Jones, L. B. (2004). Social norms, environmental management, campus culture and context: A case study of the dynamics shaping high risk drinking behaviors of college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Oregon*.
- Leigh, B. C. (1989). Attitudes and expectancies as predictors of drinking habits: A comparison of three scale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50, 432-440.
- Leigh, B. C., & Stacy, A. W. (1993). Alcohol outcome expectancies: Scale construction and predictive utility in higher order confirmatory models. *Psychological Assessment*, 5, 216-229.
- Lewis, M. A., Neighbors, C. (2006). Who is the typical college student? Implications for personalized normative feedback interventions, *Addictive Behaviors*, 31, 2120-6.
- Maddock, J., & Glanz, K. (2005). The relationship of proximal normative beliefs and global subjective norms to college students' alcohol consumption. *Addictive Behaviors*, 30, 315-323.
- Morawska, A., & Oei, T. P. S. (2004). A cognitive model of binge drinking: The influence of alcohol expectancies and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Addictive Behaviors*, 29, 159-179.
- Neighbors, C., Lewis, M. A., & Larimer, M. E. (2004). Targeting Misperceptions of Descriptive Drinking Norms: Efficacy of a Computer-Delivered Personalized Normative Feedback Interven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2(3), 434-447.
- Neighbors, C., O'Connor, Lewis, M. A., Chawla, N., Lee, C. M., & Fossos, N. (2008). The relative impact of injunctive norms on college student drinking: The role of reference group. *Psychology of Addictive Behaviors*, 22, 576-581.
- Oei, T. P. S., Hasking, P. A., & Young, R. McD. (2005).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questionnaire-revised (DRSEQ-R): a new factor structure with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Drug and Alcohol Dependence*, 78, 297-307.
- Oetting, E. R., & Beauvais, F. (1990). Adolescent drug use: Findings of national and local survey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8(4), 385-394.
- O'Neill, S. E., Parra, G. R., & Sher, K. J. (2001). Clinical relevance of heavy drinking during the college years: Cross-sectional and prospective perspectives. *Psychology of Addictive Behaviors*, 15, 350-359.
- Perkins, H. W., & Berkowitz, A. D. (1986). Perceiving the community norms of alcohol use among students: Some research implications for campus alcohol education

- programming.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Addictions*, 21, 961-976.
- Perkins H. W., & Wechsler, H. (1996), Variation in perceived college drinking norms and its impact on alcohol abuse: a nationwide study. *Journal of Drug Issues*, 26, 961-974.
- Prentice, D. A., & Miller, D. A. (1993). Pluralistic ignorance and alcohol use on campus: Some consequences of misperceiving the social nor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 243-256.
- Reese, F. L., Chassin, L., & Molina, B. S. (1994). Alcohol expectancies in early adolescents: predicting drinking behavior from alcohol expectancies and parental alcoholism.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55(3), 276-84.
- Simons, J. S., Gaher R. M., Correia, C. J., Hanse, C. L., Christopher, M. S. (2005). An affective and cognitive model of marijuana and alcohol problems, *Psychology of Addictive Behaviors*, 19(3), 326-334.
- Sobel, M. E. (1982).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In S. Leinhardt (Ed.), *Sociological Methodology*. Washington, DC: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 Sobell, M. B., Sobell, L. C., Klajner, F., Pavan, D. & Basian, E. (1986). The reliability of a Timeline method for assessing normal drinker college students' recent drinking history: Utility for alcohol research. *Addictive Behaviors*, 11, 149-161.
- Stacy, A. W. (1997). Memory Activation and Expectancy as Prospective Predictors of Alcohol and Marijuana Us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6(1), 61-73.
- Wechsler, H., & Isaac N. (1992). 'Binge' Drinkers at Massachusetts Colleges: Prevalence, Drinking Style, Time Trends, and Associated Problems.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67(21), 2929-2931.
- Wechsler, H., & Nelson, T. F. (2001). Binge Drinking and the American College Student: What's Five Drinks? *Psychology of Addictive Behaviors*, 15(4), 287-291.
- Williams, Robert J., Connor, Jason P., Ricciardelli Lina A. (1998). Self-efficacy for Refusal Mediated by Outcome Expectancies in the Reduction of Alcohol-Dependence amongst Young Adults, *Journal of Drug Education*, 28(4), 347-359.
- Wiers, R. W., Hoogveen, K. J., Sergeant, J. A. & Gunning, W. B. (1997). High and low dose expectancies and the differential associations with drinking in male and female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Addiction*, 92, 871-888.

논문투고일 : 2009. 12. 06
1 차심사일 : 2009. 12. 30
게재확정일 : 2010. 02. 10

The Relationship of Alcohol Drinking and Sociocognitive Factors on Binge Drinking of College Students - Focused on of Perceived Drinking Norm

Mi Lyu

Bundang CHA Hospital
CHA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Min-kyu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Ajou University

Hee-cheon Shi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 among alcohol outcome expectancies, alcohol abstinence self-efficacy, perceived drinking norms and alcohol use. This study was conducted via e-mail. Among 392 students who were participated via E-mail, 300 students (male 148, female 152) were met a definition of Wechsler's binge drinking. The results revealed that perceived norms were associated with alcohol use in binge drinking group, while those were not in non-binge drinking group. It was identified that a difference of peer's actual alcohol consumption and peer's perceived drinking was associated with individual alcohol use. Moreover, for binge drinking group, perceived norms predicted alcohol use better than any other factors. Drinking motives mediated the relation with perceived norms and alcohol use. Especially perceived norms affected alcohol use not only by increasing drinking motives but also by itself.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basis of prevention and intervention of binge drinking for college students.

Key words : binge drinking, perceived drinking norm, drinking motive